

## 콘크리트에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Q:** 레미콘 공장에서의 試驗·檢査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또 관리상태의 良·冼나 이상치의 관리는 담당자에게 맡겨도 좋겠습니까?

**A:** 레미콘의 생산자는 하역지점에서의 레미콘 품질을 구입자에게 보증할 의무가 있고 구조공정 전반에 걸쳐 충분한 품질관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레미콘 공장의 품질관리에는 원재료의 수입관리, 제조공정관리 제품관리, 설비관리 등이 있으며, 사내규격에는 試驗·檢査의 방법과 획득한 시험치에서의 이상대책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려면 일상시험과 결과검토를 각 공정중에서 확실히 거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에 의해 이상치의 발견, 원인의 해석, 신속한 처치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레미콘이라는 상품은 반응중의 물질을 반제품의 상태에서 구입자에게 납품하는 것이므로, 내구성이나 강도 등의 품질을 검사·확인한 후에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수입에서부터 제품까지의 각 공정에 엄중한 품질관리를 행하는 자세, 즉 “공정에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 간다”는 것 이외에는 좋은 관리방법이 없습니다. 불량품을 내는 것은 구입자에게 의혹을 줄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를 잃고, 결국에는 회사의 경영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므로 경영자는 자신이 솔선하여 품질관리를 촉진하고, 자사에서 제조되고 있는 상품의 관리상태를 파악해두어야 할 뿐 아니라, 이상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해명한 후 신속하게 대처하여 다시는 똑같은 이상치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내규격에서는 사장이 고정처리의 결재자로 되어 있으므로 고정의 원인으로 되는 이상치가 발견되면, 담당자는 경영자에게 즉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경영자는 이상치가 재료나 설비에 의해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하는데 이로인해 품질의 향상 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가 얻어질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砂의 품질에 따라 콘크리트의 강도변동이 큰 경우, 약간 고가의 砂로 바꾸어 표준편차가  $5\text{kgf/cm}^2$  작아진다면, 시멘트량의 절감으로 콘크리트의 원가가 400-500원/ $\text{cm}^2$  정도 떨어져, 오히려 Cost down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